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10차 세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 요한복음 1장 4절과 15절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요한 복음, 요한복음 14장과 15장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상호 내주하심과 함께 네 번째 복음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하심과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자들의 상호 내주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20절과 23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했겠는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장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가는 곳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수 없습니다 .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 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고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소서 그러면 족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 자체로 인해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격려함으로써 위로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늘 집에서 그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들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 아버지는 그들을 그의 면전으로 맞이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압니다, 4절. 도마는 항의합니다, 5절, 그리고 예수님은 유명한 14:6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의 일곱 가지 I am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시고 the라는 단어, the라는 관사, 그리고 술어 주격을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가지 다른 I am 말씀이 있지만 일곱 가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의미를 놓칠 경우를 대비해 이 한 구절에서 세 가지 의미를 요약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아버지의 천상 집으로 가는 길이다. 즉, 그는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전자, 내가 말하는 또 다른 전자는 같은 의미를 주지만, 하늘의 그림이 아니라 지상의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신을 계시하는 자이며, 요한복음의 두 가지 주요 주제 중 하나이며, 그가 생명을 주는 자라는 사실과 함께, 나는 생명이라는 말은 그것을 의미하지만, 나는 진리입니다. 나는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주장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나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그는 영생을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이미지에서 그것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이전의 치유에서 봅니다. 그는 몸에 생명을 주고, 등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당신은 그것을 11장에서 가장 강조해서 봅니다. 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6은 일곱 가지의 의미를 요약한 일곱 가지의 I am 말씀 중 하나입니다. 빌립은 신현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천상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버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 사실, 지금부터는, 당신은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7절.

이에 빌립은 신현을 구했습니다. 8절. 낙담한 예수는 9절에서 11절까지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빌립아,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 ?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대신하여 말하는 빌립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빌립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들이 신을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신현, 영이시며 보이지 않는 신의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현이 가시성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신의 청각과 같은 다른 감각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현이라고 불리며, 성경에서 신의 그러한 현현에서 시각이 분명히 강조됩니다. 하지만 소리와 음성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신현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성육신한 아들을 봅니다. 그들은 성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모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아들의 영원한 화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버지는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들의 성육신만이 그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아들의 성육신만이 아들을 볼 수 있게 하며, 아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게 된 것을 봅니다. 바울은 다른 관용어를 사용하지만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15과 히브리서 1:3, 그리스도는... 맏소사, 나는 이런 것들을 앞뒤로 외워야 할 것 같아. 히브리서 1:3,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 히브리서의 저자는, 나는 기원에 동의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두 그림을 사용하여 세 가지 진실을 전달한다.

히브리서 1장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아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중보자, 즉 율법을 주는 데 참여한 선지자와 천사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태양과 아들,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나고, 광채가 있고, 태양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다음에는 동전을 주조하는 세상의 이미지입니다.

태양은 신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이고, 그는 동전입니다. 신의 본성은 염료입니다. 맥락에서 중요한 생각: 광선은 태양을 드러내는데, 태양은 당신이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막을 태울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아마도 그들 중 몇몇이 힘들게 이해했고, 나머지는 경청했습니다. 태양은 염료의 각인을 지닌 동전이며, 그것은 연성 금속을 포함하고 망치로 두드려서 데나리우스 염료가 데나리우스를 생산했습니다.

문맥상 태양은 중재자, 신의 계시자이며, 구약의 계시의 중재자, 선지자, 천사를 능가합니다. 히브리서 1:1에서 실제로 2:4는 히브리서 1장의 적용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시 의 중재자라는 주요 아이디어와 함께 두 가지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과 아버지 의 동등성입니다 . 광선은 공간을 통해 연장된 태양이고, 데나리우스 동전은 염색약에 넣어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요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유사성. 세 번째 아이디어는 종속성입니다. 광선은 우주로 보내진 태양이고, 그것을 직접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태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데나리온은 염료가 아닙니다. 염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는 성육신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는 계시임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3은 다른 이미지로 같은 진리를 전달합니다. 태양의 화신만이 그를 보이게 할 수 있고, 태양을 보면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10에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들 과 함께 서로 거하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 예수님은 아버지께 진리의 영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보내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 안에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께 구하면 그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곧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진리의 영이시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오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니라.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들은 부활하신 아들을 볼 것이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도 부활의 생명을 체험할 것이다. 내가 살기 때문에, 19절, 너희도 살 것이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그의 부활로 인해 그들도 부활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듭남 속에서, 그리고 시대의 끝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0절.

그 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은 신성한 공동 상속에 사로잡힌다. 공동 상속.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 즉 예수께서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놀라운 추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격의 인격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된 페리코레시스 공동 거주어,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0장은 아들과 상호 거주어 형태를 누릴 제자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상호 거주어 형태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차원에서 삼위일체적 인격이 신성한 삶을 공유하는 것은 그들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신자들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과 교제하게 되며,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아들 안에 있을 것이며, 그는 진리의 영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거하실 것입니다. 17절과 20절. 아버지와 아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복음에서 간과된, 훌륭하고, 따뜻하고, 훌륭한 구절입니다. 유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런 말이 뒤따를 때 얼마나 기쁘지.

이스가리옷이 아닌 유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세상에가 아니라 우리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주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 그리고 나서 물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안드레아스 코스텐베르거 는, 이것은 신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신자들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썼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 그는 제자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영을 보내실 것이고, 그들은 영을 알게 될 것이며, 영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 계실 것입니다(16~18절).

게다가 그는 그들을 집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놓치지 마세요. 1절에서 3절까지, 그는 아버지의 천상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합니다. 말하자면 천상의 저택에 있는 방이지만, 집의 이미지는 돌아옵니다.

그는 여기서 다시 그것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집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아버지 와 아들이 신자들과 함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런 다음, 제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이 가정적인 인물을 사용하여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강화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 그 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어, 신자들이 신의 직접적인 현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요한 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영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로 다루는

구절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룹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이고, 믿는 자들은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전체를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나의 아버지는 포도원지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가지치기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고 가지들은 모아져 불에 던져져 타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로써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됨을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 함이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는 누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임이니라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내 친구라.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너희에게 주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물론, 19절까지 확장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거함은 11번 등장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의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상호 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주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그림은 이사야 5:1~7과 비교되며, 다른 많은 구절들과 함께 배경이 됩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고 불립니다. 예수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완성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구약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는 아들의 사명을 지휘하는 분이고, 이 언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조화를 암시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두 가지 종류의 가지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와의 기술적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 재배 이미지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아버지는 그것을 포도나무에서 떼어냅니다.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으므로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가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이상,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두 가지 좋은 이유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상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는 정도를 보이나, 마태복음 13:23,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없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16과 19, 열매가 없으면 생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땅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열매 맺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17에 따르면, 건강한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지만 병든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병든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베어져 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은 심판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매의 정도가 있지만, 목회적으로 말하자면 열매가 없는 것은 매우 나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 주신 열매가 없는 것은 구원도 없고 삶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열매 맺음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8절에서 열매 맺는 것은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됨의 증거이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포도나무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지에서 그들은 이미지의 본질 때문에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열매 없는 가지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사탄의 영감을 받아 예수를 배반하기 위해 떠났습니다(요한복음 13:27-30). 예수는 동료 제자들을 속였습니다(요한복음 13:29).

그들은 그가 예수를 배반하러 나갔을 때 그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요 6:64, 70-71). 내가 너희 열두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냐? 그는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믿지 아니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는 가지가 있는 것(15:2)은 예수와 긴밀한 접촉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미래의 배교자들, 특히 돈주머니를 맡긴 유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료 제자들은 유다가 신뢰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배신자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유다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돈가방을 가지게 하기 위해 미쳐버렸거나 유다를 죽였을 것입니다.

아니요. 12:6에 따르면,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곤 했습니다. 얼마나 사기꾼인가.

그것은 그의 관습적인 행동, 그의 지속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13:2에서 악마는 배신을 선동합니다. 사탄이 유다의 삶에는 들어갔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1장에서 그는 예수를 배신하기 위해 그에게 들어옵니다. 13장 13-21 절에서, 26-30장에서 그는 사악한 짓을 하러 갑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13:21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배반을 선포하셨습니다. 배반자는 현존합니다.

26-30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고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 떠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호 거주. 예수님의 정화하는 말씀이 열한 명을 정화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열매가 없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5절. 거짓 가지는 잘려져 지옥불에 던져진다, 6절.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이 나타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4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5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6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였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 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9절에서 열쇠는 나에게 열쇠인 듯하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암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하고, 물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아버지께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 비즐리 머레이는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을 썼고, 조지 비즐리 머레이는 인용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생 내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듯이 말입니다. 단기 인용문.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모든 장에서 완전한 체계적 신학을 제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유익하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신학에 적합하지만, 우리는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과 믿는 자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 서로 거하는 것은 서로 거한다는 생각과 겹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겹치는 부분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더 큰 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하위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거한다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안에 있다는 것이 반드시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한다는 것은 그저 그 안에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함은 아들이 그의 백성을 계속 사랑하고 그들이 그를 계속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언약적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많은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단체적이고 개인적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입니다. 단체적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고, 등등, 단수. 둘 다 참입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상호 거함의

결과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포도의 이미지에 맞게 열매라는 측면에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10절)은 열매 중 하나입니다.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열매입니다(12~14절). 또한 예수님과 따뜻한 개인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11절).

요한복음 15장은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제자들의 반응과 순종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신성한 주권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인간의 책임에 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16절과 19절에는 주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인 주 예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정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열매를 맺는 또 다른 결과를 더하셨는데,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16을 제자들을 봉사를 위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원을 위해 택하는 예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19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네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너를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돈 카슨이 그의 책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에서 보여주듯이, 요한 복음서의 성경적 관점의 의도는 예수님이 선거의 저자라는 성경의 독특한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7:20~26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믿는 자들의 상호 내주. 이것이 우리의 다음 주제이고,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요한 복음, 요한복음 14장과 15장입니다.